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3년도 표어 ⊗

그리스도인, 작은 이들의 벗(마 25 : 40, 레 19 : 18)

⊗ 행동지침 ⊗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 되는 교회
- 2.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 (02) 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에스더서 강해

전능하신 구원의 지휘자 (에 6:1-14)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지휘자이십니다. 우주만물과 인류 역사의 모든 사람들,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지휘봉에 맞춰서 연주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휘하시는 모든 것의 궁극적인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영광의 최대 수혜자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한 마디로 전능하신 지휘자이신 하나님께서 지휘하시는 연주의 내용은 택함 받은 백성들의 구원과 회복과 부흥과 승리와 기쁨입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라”(1절)

그날 밤에 하만이 모르드개를 죽이려고 사형틀을 만든 날입니다. 하만의 계획대로 라면, 모르드개는 그 밤이 지나면 다시 올 수 없는 죽음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는 바로 그날 밤에 이뤄졌습니다.

그날 밤 아하수세로 왕은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하수세로 왕이 잠들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잠이 오지 않은 아하수세로 왕은 궁궐 안에 있는 역대 일기를 가져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기 가운데 하필이면 왕의 신복들이 아하수세로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일과 모르드개의 활약으로 왕의 목숨을 구하게 된 이야기를 읽게 됩니다(2절).

아하수세로 왕은 4년 전에 있었던 아찔했던 순간을 떠올리며 모르드개에게 어떤 상이 내려졌었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아무런 상도 내리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런 상황도 모른채 때마침 하만은 모르드개를 나무에 달아 죽일 수 있도록 왕의 허락을 받고자 아침 일찍 왕에게로 왔습니다(4절).

왕이 하만에게 묻습니다. “내가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아마도 하만은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바로 자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웃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 중 거리로 다니게 하십시오”라고 대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잠들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우리는 비록 험난하고, 피곤하고, 어려운 순례의 길을 걷고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힘과 지혜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구원의 지휘자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약속의 땅을 찾아 승리하는 순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Almighty Conductor of Salvation (Esth. 6:1-14)

Our God is an almighty conductor of salvation. The whole creation, mankind, and all incidents in the history have been conducted by almighty God's baton.

The ultimate result of everything which God conducts is for God's glory. And the main beneficiaries are those who resemble God's figure and image. The contents of the concert that almighty God is conducting are salvation, recovery, revival, victory, and joy.

“That night the King could not sleep; so he ordered the book of the chronicles, the record of his reign, to be brought in and read to him” (v.1).

It was the day when Haman had the gallows built to murder Mordecai. By passing the night, Mordecai who could never return to the world he would die as Haman planned. But just on that night, something happened.

At that night, King Xerxes could not sleep. The fact that the king could not sleep was God's work. Because King Xerxes could not sleep, he ordered the book of the chronicles in the court to be brought in and read to him. In the record of his reign, he read that his own reliable lieges conspired to assassinate king Xerxes and Mordecai saved the king's life, and of all the records (v.2).

King Xerxes recalled the dazzled moment happened four years ago, and asked “What honor and recognition has Mordecai received for this?” Eventually he knew that nothing had been done for h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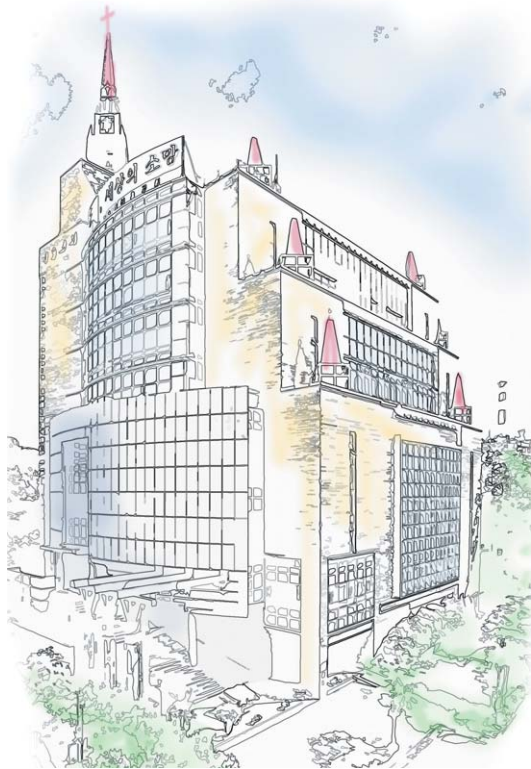
Unknowing this situation, Haman early in the morning went to the King to ask for permission from him in order to have Mordecai hanged on the gallows (v. 4).

The king asked Haman, “What should be done for the man the King delight to honor?” Perhaps, Haman might think to himself that no one was there the king would rather honor than him. Therefore, he answered, “Then let the robe and horse be entrusted to one of the King's noble princes. Let them robe the man the king delights to honor, and lead him on the horse through the city streets, proclaiming before him, This is what is done for the man the king delights to honor.”

My beloved Christians!

Even though we sleep, our God does neither drowse, nor sleep. Although we cross the rough, tired, and difficult pilgrim's way, we are able to have the victory with the power and wisdom that is given by almighty God.

By looking at God who is a conductor of salvation, I sincerely pray that you will have a victorious pilgrim in the name of Jesus Christ.



2013년 행사 섬김위원 임명

우리교회는 2013년 한 해 동안 교회 내 외의 각종 행사에서 섬기는 이들을 발표하였다. 임명받는 이들은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큰 역사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한다.
2013년 행사 섬김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1. 홍해작전

- 기간: 6월6일(목)~6월25일(화)
- 지도: 한상은 목사
- 부장: 하영수 장로
- 차장: 송인권 집사
- 기획: 최규초 / 교회학교부장
- 예배: 김광욱 / 예배위원회 예배위원
- 동원: 최형열 / 교구위원회 부교구장, 교구간사
- 홍보: 김규태 / 순례자팀
- 봉사: 이은옥 / 제2권사회 여전도회 피택권사
- 차량: 김광룡 / 피택장로 스테반회 피택집사

- 섭외: 이강인 / 황병석 이종창 박명철 진승근 정진문
- 홍보: 정치은 / 장윤기 허숙 최진경
- 시설관리: 오유식 / 스테반회
- 사랑의온도계: 양인수 / 교구간사
- 특판: 은기장 / 안홍희 이준호 신현일
- 식당관리: 최차순 / 원용규
- 차량: 오치열 / 정동학 이남성 김해수 김종철1 김정호 박충구

2 바자

- 기간: 9월12일(목)~9월13일(금)
- 지도: 유문건 목사
- 부장: 노송성 장로
- 차장: 차도훈 집사
- 기획: 김광태 / 김영희 장상국 노창훈 박종권
- 재정: 송인수 / 이안순 정경자 이경란
- 판매관리: 예완식 / 강낙훈 오윤걸 정수환 정미연 최금숙 구진경

3 사명자 대회

- 기간: 10월6일(주)~11월24일(주)
- 지도: 오세광 목사
- 부장: 김영준 장로
- 차장: 주동재 집사 김상태 집사
- 진행: 백승갑 · 교육: 박광식
- 홍보: 김수원 · 안내: 윤동수
- 전도: 신봉하 · 재정: 홍승전
- 기도: 김금준
- 봉사분과: 허숙 / 제1권사회 피택권사
- 차량부: 김광룡 / 차량부 피택집사

찬양대원 세미나 및 연합기도회

- 일 시: 4월 23일 (화) 오후 7시 30분
- 장 소: 웨스트민스터 홀
- 주 제: '성가에 가장 어울리는 소리란?'
- 강 사: 염진섭 교수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졸업
- 미국 하트포트 음악대학 석사 (합창지휘전공)
- 미국 아리조나주립 음악대학 박사 (합창지휘전공)
- 기독교방송합창단 상임지휘자 역임
- 국립합창단 상임지휘자, 감독 역임(7년)
- 현재, 백석대학교 음악과 교수
- 간단한 식사 준비 : 6시 ~ 7시 20분, 만나홀

제 43 회 학술공개세미나 개최

5월 20일(월) 오후 2시, 100주년 기념관

(재)한국기독교학술원(원장 이종운 목사)은 오는 5월 20일(월) 오후 2시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소강당에서 제 43회 학술공개세미나를 개최한다.

종교개혁 이래 가장 부패한 교회라는 오명이 붙은 한국교회의 현재가 부흥과 성장만을 자랑할 때가 아니라 판단 하에 주최측은 이번 세미나의 주제를 교회소생(Church Revitalization)으로 정하였다.

이 날 발제자는 권성수, 정장복 박사가, 논찬자는 왕대일, 오영석 박사가 각각 선다.

카자흐스탄 Vision Trip 참가신청

우리교회는 2013년 Vision Trip Team(지도 서명철 목사, 단장 이준호 집사)의 선교지역을 카자흐스탄으로 정하고 8월2일부터 8월9일까지 7박8일 동안 우리교회에서 파송한 이은준, 강혜정 선교사가 섬기고 있는 파라즈 미르교회를 중심으로 의료사역과 청소년 사역을 펼칠 예정이다.

경비는 1인당 150만원 정도로 자비량이며, 모집대상은 의료팀 및 청소년사역팀 총 25 명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성도는 4월21일까지 사무국에 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란다.

카자흐스탄은 무슬림이 강한 나라로서 기독교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지 않지만, 이번 Vision Trip을 통하여 헌신적인 치료와 청소년 봉사를 수행한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주님의 나라가 임할 것으로 확신한다. 카자흐스탄의 Vision Trip에 서울교회 성도님들의 뜨거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금지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 협회는 공문을 통하여 교회 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를 일체 근절해 줄 것과 정품을 사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위반 시 저작권법을 위반한 행위로 교회에 민, 형사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 부서와 기관은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

목사님, 궁금해요!

이종운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 [83]

(문 82) 사무엘상 13:1에 숫자를 작은 글씨로 썼는데 무슨 뜻이 있습니까?

(답) 구약의 히브리어 원전을 비판적으로 주해하고 있는 마조라 텍스트에는 원문에 반드시 있었다 할 수 있는 것이 빠져 있습니다. 마조라 텍스트를 문자적으로 인용하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 "사울이 왕이 될 때에... 세의 아들이었다.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삼천 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이천 명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라고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몇 세라는 말을 할 때 복수형(sanim)으로 된 이 말은 20세 이상을 뜻하기 때문에 사울이 왕이 된 것은 20세는 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sanah단수형으로 억지로 수를 붙여 읽는다면 "사울은 왕이 될 때에 한해 된 아들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Targum역) 그러나 흠정역(KJV)의 '사울이 1년 다스렸다'(Saul reigned one year)라는 번역은 적당하다 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어 텍스트에는 다스렸다(reigned)가 아니고 '한해 된 아들이었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사울이 다스리기를 시작했을 때에 1년 된 아이처럼이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이들이 있으나 아무래도 어색하게 들립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번역한 것은 완전한 억측인 것 같습니다. 본래 숫자를 나타내는 문자가 있었으나 그것이 떨어져 나가서 전승되지 않은 것을 오리겐(Origen)은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30세가 되었더라'고 읽었고, 70인역(LXX) 성경에서는 본 절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왕 될 때에 그 아들 요나단이 군 지휘관이었으나(삼상 13:2)아마도 사울의 나이는 40세 이하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Robertson은 아들을 의미하는 '벤'을 고대의 숫자 표시의 문자로 보고 52로 풀이하여 '사울이 왕이 될때에 52세 되었더라'고 하였습니다.(BJRL 1944.S.195)

NASB(The New American Standard Bible)는 40세를 말하고 있으나 32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또 다른 억측을 더하고 있습니다.

RSV(Revised Standard Version)에서는 마조라 텍스트처럼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년에"라고 점선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경(Jerusalem Bible)은 1절을 모두 생략하고 난 외에 마조라 텍스트를 과감하게 적고 있습니다. NIV(New International Version)은 "사울이 왕이 될 때에 「3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2」년에"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난하주행 13:21 즉 "하나님이 ...기스의 아들 사울을 사십년간 주셨다"를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이 년에"라는 이 숫자는 변경시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나단이 므마스에서 블레셋을 습격한 사건과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주 계속)

만민에게 전도 - 단기선교

카자흐스탄에 복음을



서명철 목사 (단기선교팀지도)

중앙아시아 북부에 자리잡은 카자흐스탄은 인구의 70%가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 국가입니다. 개신교는 2%에 불과합니다. 영적으로 척박한 이 땅에 우리 교회는 이은준, 강혜정 선교사를 2005년 11월에 파송하였습니다. 그들은 실크로드 선상에 있는 도시인 파라즈(인구 43만 여명)에

터를 잡고 미르교회를 개척하여 그 지역을 중심으로 소외된 오지들로 사역의 경지를 넓히며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교회는 2006년에 단기선교팀을 파송하여 미르교회 예배당을 건축하는 사역을 하였으며, 2007년 11월에 우리 교회의 지원으로 미르교회를 헌당하였습니다. 이은준, 강혜정 선교사는 청년들에게 제자훈련을 시키는 일에 힘쓰고 있으며, 미르교회는 무슬림권에서의 선교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거리에 나가서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여건이지만, 카자흐스탄에는 주님의 교회들이 꾸준히 세워져가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부흥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은준, 강혜정 선교사는 미르교회에서 20개 마을교회



2006년 단기선교팀이 미르교회 건축을 도왔다.

개척을 목표로 정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교회 2013년 카자흐스탄 Vision Trip팀은 8월 2일(금)부터 9일(금)까지 7박8일 동안 미르교회에서 의료 사역과 청소년 사역을 하고자 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인당 예상 소요 경비는 150만원 정도(자비량)입니다.

선교보고

캄보디아의 부활절

이재율 선교사(캄보디아)

작년까지 캄보디아 부활절 예배는 1주일간 군인교회를 순회하며 전도집회 형식으로 예배를 드렸으나 금년에는 프놈펜 인근 4개 군인교회의 부활절 예배를 부활절 달걀, 간식 등을 선교센터에서 지원해 주고 사역자들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하나임 선교센터는 작년에 현장 예배를 드린 캄퐁츠낭 마하나임교회에서 인근지역에 교회없이 가정교회 형태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2개 교회를 초청하여 연합으로 부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금년에도 변함없이 달걀을 삶고, 삶은 달걀에 "예수 부활"이라는 크메르어 글씨(프레이야 예수 르홀 랑빙)를 써서 전도용으로 활용하였는데 이번에는 MSO에서 부활절 스티커를 보내 주셔서 900개의 삶은 달걀을 모두 준비하는데 하루 만에 끝낼 수 있었습니다.



건기 막바지에 이른 요즘 37-8도를 오르내리는 날씨로 인해 우리의 몸은 힘들고 지쳤지만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부활절연합예배를 위하여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캄퐁츠낭교회 성도들을 바로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우선 제자훈련을 두 단계로 나누어 1단계 훈련을 1월말부터 6주간 시행하였으며, 현재는 2단계 제자훈련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설립 1주년 감사예배에는 하나님께서 지난 1년동안 캄퐁츠낭 마하나임교회를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목도할 것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가슴이 벅차 오릅니다.

캄퐁츠낭교회의 태동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2010년 부대안 회의실에서 임시로 시작한 예배는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어 캄퐁츠낭에 주님의 몸뚱이 교회가 건립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것도 캄보디아의 지정학적인 심장부에 분명한 목적을 가진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을 세우도록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저희들에게 캄퐁츠낭교회의 비전을 현장 예배 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묵묵히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며 내일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비전2020운동 - 육사세례식을 마치고

미래의 대한민국과 군을 이끌어갈 지도자들!



지동길 성도
(비전2020위원)

서울교회 비전 2020 운동본부(부장: 이갑진 장로)는 지난 4월 10일 박노철 담임목사님의 집례로 육군사관학교 진중세례식을 거행하였습니다. 북한의 전쟁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를 위하여 희생, 헌신하는 일에 담대히 나설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대합니다.

이들로 인하여 수많은 젊은 영혼들이 구원의 문을 두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이들이 밝게 되는 전선은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견고하게 지켜질 것임을 믿습니다.

상황에서 드러진 세례식이어서인지 출전의 분위기마저 느껴지는 엄숙함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은혜롭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육군사관생도들은 미래의 대한민국과 군을 이끌어갈 지도자들입니다. 따라서 기도하는 지도자 한사람이 천하 만민을 축복의 길로 인도한다는 신앙적 진리의 토대 위에서 볼 때 이들에 대한 세례는 개인은 물론 군과 국가에 복되고 복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박노철 담임 목사님께서서는 설교를 통해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관생도들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된 오늘부터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만 천하에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이 견고하여 어떠한 환경과 상황의 변화 속에서도 요동치 않는 신실한 믿음의 지도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모세와 같이 낮은 자를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 축복의 기도를 올리는 지도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용기 있게 행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위하고, 나라

특별찬양

오늘 찬양예배 특별찬양은 그레이스랜드벨과이어(대장: 김형배 집사의 연주로 드린다. 송재월 집사의 지휘로 'Lord, I lift your name on high 주의 이름 높이 세', 'The Heaven are telling the glory of God 저 하늘이 주의 영광 말하네 (하이든 작곡 천지창조 중)', 'Above all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세속을 오르가니스트 김현정 집사, 피아니스트 김양언 선생, 팀파니스트 윤주일집사(할렐루야 찬양대)가 함께 연주하고 찬양대 솔리스트인 조성아 선생, 박수련 선생, 이아람 선생, 오준희 선생이 솔로를 담당한다.

천국시민양성- 새가족부를 섬기며

새 생명을 위하여!



주치흠 집사
(새가족부교사)

새가족부에는 매주 다양한 배경의 새가족들이 오십니다. 그들은 교사들의 따뜻한 관심과 기도를 받으며 유문건 목사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4주간 교육을 받습니다.

첫 주는 새 생명을 얻은 여인 이야기로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

가에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내용을, 둘째 주는 거듭난 남자 이야기로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내용을, 셋째 주는 생명의 다리 이야기로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 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듣고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리 삼아 하나님께로 건너가게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내용을, 넷째 주는 흔들릴 수 없는 구원이야기로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구원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게 되면 하

나님이 안전망이 되어 주시므로 이 세상에서 두려움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내용을 성경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저 또한 새가족부 교사로서 새가족부 교육을 반복해서 들으며 많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새가족들이 새가족부 교육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자세히 듣게 된 후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에 모셔 들이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감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타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어 늘 마음에 평강이 없었던 분들이 새가족부 교육을 통해 성경말씀에 근거한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갖게 되면서 표정이 밝아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부족한 저를 주님의 몸된 서울교회의 새가족부 교사로 불러 주시고 이 귀한 복음을 매주 새롭게 배우게 하시고 이 귀한 복음으로 새가족들을 넉넉히 섬길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등정

■ 이준용 원로목사는 16일(화) 고 김상철기념사업회 창립(발기인) 대회에 참석한다. 17일(수) 한국로잔위원회에 참석한다. 18일(목)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사업회 정기이사회에 참여한다. 20일(토) 종교개혁500주년대회를 소집하며 종교개혁특강을 연다. 총회표준주석 편찬위원회를 소집한다.

■ 수상 : 2교구 이동만 집사 2013년도 한국패션브랜드 대상

■ 주간식당봉사 : 에스더전도회(4.14) 스테반회(4.21)

■ 금주의 식사 : 신도섭 집사 김영숙 권사 가정 (자녀 결혼 감사하며) 조경연 성도 유미리 성도 (결혼 감사하며)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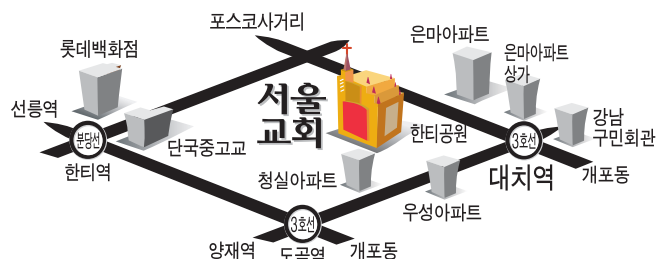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흥해작전, 바자, 그리고 사명자대회 등등 계속 이어지는 교회 행사가 잘 준비되어 복음의 열매가 풍성하도록
2. 이번 여름 카자흐스탄 단기선교팀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더욱 힘있게 확장될 수 있도록
3. 북한의 모든 위협에서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시고, 한국교회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 교회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